

‘디지털 교도소’ 재운영 강행... 숨진 고대생 여전히 공개

지난 8일 접속 차단 후 나흘만에 운영재개 11일 공지 “완벽 증거와 자료로 신상공개” 경찰, 국제공조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수사

성범죄자 추정인 신상 공개 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운영을 재개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이 사이트는 무고한 사람들의 신상공개 논란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12일 뉴시스 확인결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는 이날 오전 현재 운영 중이다. 메인 화면에는 성인 남성 다수의 사진과 인적 사항 등이 공개돼있다.

최근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려대 학생의 신상도 그대로 게재돼 있다. 다만 무고함을 입증

한 채정호 가톨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의신상정보는 삭제한 상태다.

앞서 디지털교도소는 지난 8일 돌연 접속이 차단된 바 있다. 그 후 11일 운영이 재개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2대 운영자로 소개한 글 작성자는 “현재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진들은 경찰에 의해 모두 신원이 특정되고 인티폴 적색수배가 된 상태”라면서 “1기 운영자는 8월부터 이런 사태에 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여론으로부터 사적 제재 논란으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고,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디지털교도소는 이대로 사라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웹사이트”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업로드된 게시물 중 조금이라도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차 없이 삭제했고, 일부 게시 글은 증거 보완 후 재업로드 예정”이라며 “허위 제보를 충분한 검증 없이 업로드한 1기 운영진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적었다.

현재 경찰은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제 공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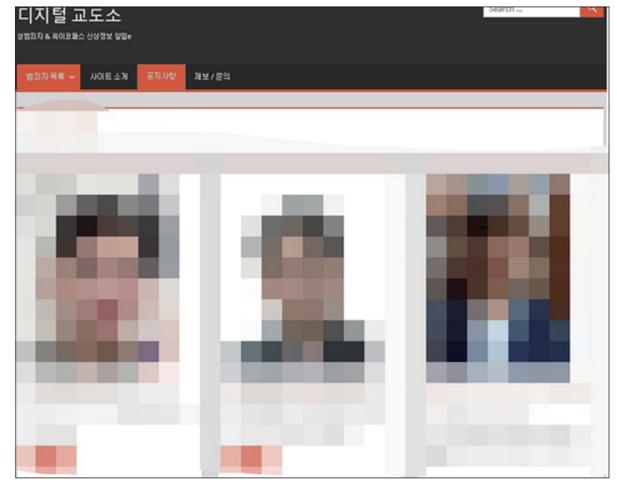
을 통해 운영자 추적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또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로, 경찰청은 이를 인티폴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 또는 흉악범죄 관련자들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취지로 운영된 사이트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 대해서는 사적 처벌 논란과 무고한 인물 신상을 공개한다는 비판 등이 있어 왔다.

채정호 가톨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등 무고한 신상공개 사례들이 실재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숨진 고려대 학생이 생전 이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게시된 것을 억울해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유우나기자



거리두기 2단계 조정, 학원 대면수업 어떻게? 정부가 앞으로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힌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추미애 아들 군특혜 의혹’ 제보자 “잠수 안타...증언할 것”

페이스북에 잠적 의혹 반박하는 내용 적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병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잠적 의혹에 반박하며 수사기관과 국회, 법원 등에 증인으로 나가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추 장관 아들 서모씨와 함께 근무했던 제보자 A씨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그는 서씨의 휴가 관련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를 올려놓고 “저는 그간 이 문제만을 이야기해왔을 뿐”이라고 적었다.

이어 “행정명령이 24일까지도 발부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미복귀로 인식한 것”이라면서 “제가 알고, 제가 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미 끝났으니 저한테 관심 꺼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논문제출자격시험 및 졸업논문심사에만 신경 쓰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글을 지난 11일 오후 8

시계 최초로 올린 후 수차례 수정했다. 지난 12일에는 ‘내용추가’라는 설명과 함께 “하나 일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도망도 잠적도 하지 않습니다. 검찰이든 법원이든 국회든, 나라가 증인으로 부르시면 지금과 같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증언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글이 최초로 작성된 이후인 지난 12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씨를 서씨 관련 의혹의 출발점으로 지목해 수사나 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A씨는 잠수타기 시작한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전부터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와 추측이 나오자 A씨가 여기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승호기자

‘스타강사’ SAT 시험지 빼냈나...학부모 20여명도 입건

시차로 시험시간 다른 점 이용

미국의 대학 입학시험인 SAT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지역 강사와 이 시험지를 받기 위해 이들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의 학부모 20여명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남 학원가의 SAT ‘스타강사’ A씨를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범행을 함께 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내 브로커 B씨는 최근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유출된 시험지를 받는 대

가로 강사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학부모 20여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남 학원가에서 조직적 SAT 강사로 유명한 A씨는 브로커와 함께 SAT 문제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SAT 시험이 전 세계에서 같은 날 진행되지만, 국가 간 시차 때문에 사실상 실제 시험 시간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 일당이 중국에서 시험지 사 진을 찍어서 보내면, 한국 강사들이 답안지를 만들고 유럽 등에 가 있는 수험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 세계로 전달되는 SAT 시험지 박스를 뜯어 사진으로 찍은 시험지를 해외 브로커를 통해 전달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나 사업가 등으로 알려진 학부모들은 해당 시험지를 받기 위해 스타 강사 일당을 학원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의 현금이 든 가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시험지를 전달 받은 학생들은 SAT 시험에서 대부분 만점을 가까운 점수를 받았고, 이들은 미국의 아이비 리그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봉우기자

‘갑질·성희롱 의혹’ 공기관 직원 해고 무효 소송서 패소

갑질·성희롱 의혹을 받던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이 ‘강압에 의해 해고됐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기관을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는 광주시 산하 모 공공기관 전 직원 A씨가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7월 이 기관에 근무하던 직원 2명은 A씨에 대한 갑질·성희롱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상관에 제출했다. A씨는 진정 제기 닷새 만에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냈다.

해당 기관 상관은 A씨에게 전화해 권고사직을 권유했다.

이후 A씨는 ‘조직 진단을 앞두고 내부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권유받았

다는 내용이 담긴 사직서를 다시 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퇴직 처리됐다.

A씨는 ‘동료 직원에게 갑질·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다.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측의 강압 내지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기동취재본부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